

第66回

8月12日, 成功



- ... 우리協會는 지난 8月12日 ... ○
- ... 協會 研究室에서 第66回 發 ... ○
- ... 明教室을 開催했다. 每月 둘 ... ○
- ... 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 ... ○
- ... 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 ... ○
- ... 백여명이 參席하여 盛況을 이 ... ○
- ... 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 ... ○
- ... 는 코리아스엔電子 鄭榮春사 ... ○

형광등용 전자식 스타트 發明人

코리아스엔 電子 鄭榮春 사장

'82뉴욕國際發明展에 「全相勵磁式 디지털 무정류자모터」를 出品, 현역 空軍下士의 몸으로 銀賞을 受賞하여 화제를 모은 코리아스엔 電子 鄭榮春 사장은 中學校 시절부터 소문난 發明人으로 82년에 이어 '89 뉴욕國際發明展에서 「형광등용 전자식 스타트」를 出品하여 金賞을 受賞하는 등 명실공히 中堅 發明人의 자리를 굳혔으며, 기업인으로서도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어린시절부터 發明人을 꿈꾸어오던 鄭사장이 發明人으로서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中學校 3學年때인 '74年이다.

목포 마리아회 中學校 3학년 에 재학중이던 鄭사장은 電子降

水量 및 디지털風向計를 發明, 全南道展에서의 入賞을 계기로 發明界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그 發明品을 보완, '76년에는國展에 出品하여 영예의 特賞을 차지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78년에는 장거리 자동전화기 자동통제기인 D·D·D 자동제어장치를 考案해 特許를 얻었고, '89뉴욕 國際發明展에서 「형광등용 전자식 스타트」로 金賞을 수상하였다.

鄭사장은 「형광등용 전자식 스타트」의 發明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1938年 美國에서 形광등이 처음 商品化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글로우 방전스타터에 의해 점등되었으나, 이 스타터는 깜박거리며 켜지고 점등시간(2~5초)도 긴 단점을 지니고 있

으며 개선책으로 나온 레피드식 안정기도 너무 무겁고 가격도 대폭 비싸져서 실용적인 것이 못됐지요. 따라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기술개발하여 착수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소형 경량화된 2 단자 스타터를 값싸게 성공시킨 鄭사장은 이 스타터를 기업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美國·日本·中國등지에 出願을 완료했으며, 조기사업 촉진을 위해 캐나다 프 로스트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85年 11月에 아람전자 시스템으로 출발한 코리아스엔 電子는 몇차례의 도산 위기에도 이르렀으나, 鄭사장의 집념과 노력으로 지금은 탄탄한 기업체로 성장하고 있다.<♣>